

WINTER

2020

# 하늘꿈중고등학교 겨울소식지



하늘꿈중고등학교 대한민국 최초의 부인이탈청소년 대안학교 (2003년 개교)

# Contents

|    |           |
|----|-----------|
| 3  | 교장 선생님 서신 |
| 4  | 하늘꿈 기획    |
| 8  | 하늘꿈 르포    |
| 11 | 하늘꿈 열매    |
| 14 | 우리들의 이야기  |
| 17 | 하늘꿈 소식    |
| 19 | 후원자 명단    |

° 2003년 개교한 국내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1호. 경기도 교육청 학력인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통일부 등록 사단법인 좋은씨앗이 운영하며 서울, 경기 지역에 10개의 가정형 기숙사 운영

° <수상> 통일부장관상(2001), 국무총리상(2002), 한국감리교선교대상(2002), 서울시장상(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2009), 세계여성자원봉사단체 소롭티미스트 루비상(2012), 자랑스런 정신동문상(2017), 경기도교육청 연구학교 우수 평가 및 교육감 표창(2019)

° <외부 평가> 교육과학기술부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2010), 미국 국무부 ‘탈북청소년 리더십 프로젝트’ 선정(2011), 통일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운영매뉴얼’ 개발 공동연구(201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정운영 외부평가단 평가 우수학교(2012), 서울시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2013), 서울시 북한이탈청소년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사업 평가 우수 등급 획득(2014), 공동모금회 북한이탈학생 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2015),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북한이탈학생 특성화교육 지원 사업 최우수 등급 획득(2016), 교육부 지정 통일준비(시범)학교(2016), 경기도 교육청『연구학교』선정(2017~2018)

° <하늘꿈학교 사명선언문> 하늘꿈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전인적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을 자유민주통일과 북한교회 회복을 이루는 일꾼으로 양성합니다.

° <핵심가치> Integrity(온전함), Frontier Spirit(개척 정신), Incarnation(삶으로 전하는 그리스도), Hope in Christ(소망의 인내), Next Generation(다음 세대)

##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하는 삶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명기 10:18

“아... 고향 가고 싶어요.”

20대 중반 졸업생의 긴 탄식입니다.

“지금 북한은 가을걷이 때인데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생생합니다. 지금도...”

수입이 높은 기술직으로 일하며 건강하게 정착해도 우리 아이들 마음에는 고향이 크게 자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북한아이들은 농사를 싫어합니다. 꿈꿨던 얼어붙은 땅을 파야 하고, 열심히 농사지어도 남는 것이 없고 빚을 갚지 못해 전주(채권자) 집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하던 기억들... 그럼에도 고향이 그리운다는 졸업생의 탄식은 어린 나이에 학교에 와서 지금이 되기까지 씩씩해 보여도 남한에서의 삶도 꽤나 힘에 겨웠다는 것이겠지요. 학교는 이런 나그네 같은 아이들에게 고향이고 부모 품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말과 행동도 모두 수용이 되니 막혔던 숨통이 트이나 봅니다. 새삼 마음이 저렸습니다.

고향은 형제자매가 있어도 갈 수 없고 그나마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 삼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아와 나그네인 아이들과 함께 한 것이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 받은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우리의 마음은 겨울이었습니다. 성장하는 학생들의 소식을 전하며 하늘꿈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함과 하나님의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고아와 나그네인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담아주셔서... 🌈

하늘꿈 학교장 임 향자

##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AI 스터디’

### 특별한 수업

정규 수업 7교시가 끝나면 특별한 수업이 시작됩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스마트 학습기를 꺼내 전원을 켜고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 수업의 이름은 ‘AI 스터디’입니다.



하늘꿈 학생들은 남한 청소년뿐 아니라 같은 학년 사이에도 학습 격차가 매우 커 학습에 흥미를 잃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교육은 경제적인 이유로 꿈도 꾸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 결손은 하늘꿈 프렌즈(봉사자) 과외 선생님과의 연결을 통해 채우고 있습니다.

\*아시아교육협회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습상황에 주목하여 하늘꿈중고등학교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기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스마트러닝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아이스크림에듀의 학습기기는 학교 공부에 필요한 내용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된 학생들이 한자리에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접하며 학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아교육협회는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의 아시아지부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모두를 위한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수업

AI 스터디를 접한 학생들은 이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늘꿈중고등학교 고2 학생의 인터뷰입니다.



“매일 선생님께서 정해주시는 요일 별 학습과제(오늘의 학습)를 수행한 후, 영어, 수학, 한문 과목에 중점을 둔 나만의 학습목표를 세워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진로와 직업에 관한 내용들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AI 스터디 교육시간 45분이 너무 짧고 아쉽게 느껴집니다. AI 스터디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고히 다져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에 맞게 수업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수업들을 자신이 선택하여 배울 수 있다는 점이 AI 스터디 교육의 최고 장점입니다. 처음 AI 스터디를 한다고 할 때는 교육내용과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것이 배우는 데 있어서 과연 효율적일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AI 스터디를 시작하고 나서 그런 의문점들이 없어졌습니다.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 고2 류O현-



낯선 기기의 조작부터 익혀야 했지만 주 5회 45분의 AI 스터디 수업을 진행하며 이제는 스스로 원하는 학습내용을 탐색하고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더하여 흥미를 바탕으로 학습의 동기를 얻고 학습 격차를 줄여나가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중 스마트 기기 활용능력이 높고 자기주도 학습 태도를 갖춘 일부 학생을 위한 ‘심화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투스과 연계한 고등학교 수준의 콘텐츠를 별도로 제공받아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했던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갈등을 풀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아시아교육협회와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하늘꿈중고등학교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기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탈청소년, 더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 모델이 개발되어 통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양성되길 소망합니다.

# 'AI 스터디' 총괄 담당교사 인터뷰

하늘꿈중고등학교 연구부장 강윤희



## Q1. AI 스터디의 추진 배경(계기)은 무엇인가요?

우리 학생들은 과거의 교육 경험이나 학업 수준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북한에서 무학이었던 경우부터 제일중(북한의 특목고) 출신이거나 대학을 다니다 온 친구들까지 있죠. 실력도 천차만별이라서 같은 학년, 같은 반이라도 같은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감사히도 프렌즈 봉사자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방과 후 1:1 과외를 통해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학력 결손을 채워가고 있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한 교수님을 통해 인공지능(AI) 교육에 뜻을 가진 이주호 이사장님(전 교육부 장관)과 교장선생님을 연결해 주셔서 관련 미팅을 가질 수 있었고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도입하게 됐어요. 제가 경험한 하늘꿈학교는 늘 이런 식인 거 같아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보내주시고 좋은 것들을 선물처럼 주시더라고요.

## Q2. 유관기관과의 협력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나요?

네. 하늘꿈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시고 우리가 품은 비전에 대해 공감해 주셔서 함께 일하는 것이 순조롭고 감사해요. 아시아교육협회와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과 저희 세 기관이 얼마 전 MOU를 맺었어요. 협회의 이사장님과 재단의 사무총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셨는데, 우리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기대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진심이 전달되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벅차고 기뻐요.



### Q3. 교사들이 AI스터디 시간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학생 관리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그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요. 보통 학생들은 엄마가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우리 학생의 부모님들은 생계의 전선과 적응의 과정에서 매우 고생하고 계시고, 자녀 교육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교사들이 엄마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죠.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 기기를 가져다줘도 선생님이 직접 관리해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세팅하고 기기 사용이나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해주고 학습 동기를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 Q4. 프로그램을 이끌며 느낀점이나 감사했던 순간이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시작 단계라 이것을 통해 어떤 성과를 볼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몰라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늘꿈학교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따라가는 곳이고 저희는 그러한 은혜를 가까이서 경험하는 증인이자 무익한 종이기에 기대함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 일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 학생들은 북한에서 컴퓨터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와요.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전원 켜기와 타자 연습을 하죠. 어찌 보면 AI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걸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신다고 느껴요. 더 나아가 이러한 시범적 적용을 통해 탈북청소년들뿐 아니라 교육을 잘 받지 못한 미래의 북한 아이들을 위해 통일 시대에 사용하려고 하시는 걸까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의 스텝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겠죠?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

## 역철이의 ‘AI 스터디’ 45분 스케치



컴퓨터실에서 ‘내 이름’이 적힌 기기를 찾아 꺼냅니다.



기기를 들고 우리 반 교실로 이동합니다.



기기를 열고 전원을 켜니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필수로 수행해야 하는 ‘오늘의 학습’은 영어입니다.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영어 퀴즈를 풀어봅니다.

## 가락동에서 북정동으로 하늘꿈 기숙사 이사 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2학기가 막 시작되어 분주한 9월의 어느 날,가락동에 있던 집들이 학교 근처 북정동에 도착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짐이 집 안으로 다 들어가고 사다리차가 떠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비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교사와 학생 그리고 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집을 정리하니 금세 새로운 보금자리에 온기가 퍼집니다.

### “가락동, 옹기종기 모인 여학생 기숙사.”

하늘꿈 여학생 기숙사는 총 다섯 곳입니다. 그중 세 집이 가락동 한 빌라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좁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늘꿈의 역사만큼 긴 시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건물의 노후화로 천장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생기며 불편함을 넘어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 차례 기숙사 공급처에 환경개선을 요구했지만 시간만 흐를 뿐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였지만, 그 단어의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두 알았기에 쉽게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뿐이기에 7명의 영혼이 평안히 머무를 거처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가락동 기숙사의 노후화



새로운 북정동 그집

“기숙사 건물은 LH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재건축이 시급한 이 건물에 계속해서 하자가 생겼습니다. 학생 방에 계속해서 물이 떨어져 방 한가운데에 바가지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가 온다는 장마 예보를 들으면 천장에서 또 물이 썰까 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까맣게 피어나기도 하고, 물이 전등에 타고 들어가서 차단기가 내려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가락동 301호 생활 교사 이지은)

## “복정동, 두 집 헤쳐 모여”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안팎의 기도와 후원이 모여 두 곳의 기숙사 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가락동 301호와 302호가 합쳐져 복정동의 한 빌라에 새로운 동지를 틈 것이죠. 3~4명이 살던 집에서 교사 포함 7명이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걱정도 되지만 가락동에서의 환경을 떠올리니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무엇보다 하늘꿈학교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기쁘고, 넓은 공간에 화장실이 2개라는 점도 썩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선 늘 우리의 필요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함께 청소하며 정리하는



이사 날 풍경



이사를 마친 후 드리는 감사기도

“두 집이 한집으로 합해져 정리할 짐이 두 배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이사센터가 구해지고, 비 예보에도 이사하는 동안 날씨는 맑기만 했습니다. 새로운 집에 함께 살게 된 6명의 학생들은 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협력하며, 이사를 은혜 가운데 끝낼 수 있었습니다.

식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집 크기기도 늘어났습니다. 방이 3개가 되었고, 화장실도 2개가 되었습니다. 각 방에 이층 침대와 독서실 책상이 생겨 정말 기숙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6명의 식구가 생활하기에 넉넉하고 쾌적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집으로 오기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셨음을 느낍니다.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후원금부터 자원봉사자들의 귀한 청소 섬김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께서 우리 하늘꿈 학생들을 참 사랑하는구나 많이 배우고 느낍니다.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알콩달콩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사는 현재 진행 중”

11월, 여학생 기숙사 두 집이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해 지금껏 가락동에 남아있던 401호와 비슷한 약조건 속에 생활했던 석촌동 기숙사의 간절한 기도가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사하는 모든 과정이 쉽지않은 않지만 기도와 재정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한 손길들과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순적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집의 이사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새로운 공간에서 하늘꿈 학생들이 평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사 현장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하늘꿈학교'를 검색하시거나 우측 QR코드로 검색해주세요.





# 좋은 아빠가 되는 것, 좋은 남편이 되는 것, 그분의 일을 성실히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저의 또 다른 꿈입니다.

하늘꿈중고등학교 6회 졸업생

유성혁



## 북한에서의 삶

###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늘꿈학교 6회 졸업생 유성혁입니다. 올해 16회 졸업생까지 배출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저보고 화석이라고 하는 것 맞나요? ^^ 요즘 한국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은 참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현재 마스크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고 결혼해서 아내와 아들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 북한에서 어떻게 지냈었는지 궁금 궁금합니다.

지금 하늘꿈학교에는 고난의 행군 시절에 태어났거나 그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 네 식구였는데 먹을 것이 너무 없어 모두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뽕뽕이 흩어져서 각자 먹을 것을 구해서 생존했습니다. 어쩌다가 역전에서 만나면서 ‘아직 살아 있구나’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또다시 헤어져야 했습니다.

### ‘고난의 행군’을 실제로 살았던 졸업생의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어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아는 사람 없이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그냥 밥만 먹여주면 돈을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언젠게 북송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주인의 눈치를 얼마나 살피고 살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흩어진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2017 홈커밍 데이



2019 홈커밍데이 교장선생님과 아들 시운이

## 한국에서의 삶

###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은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그렇게 몇 년을 무임금으로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지고 나서까지 매일 쉬지도 못하고 일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고돼서 잠들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막힌 우연으로 중국에서 아버지와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드디어 만났으니 한국에서 함께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는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 하늘꿈학교는 어떻게 다니게 되었나요?

한국 사회에서 조금 지내보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다 한 공부를 해야 했는데 일반 학교는 갈 수 없었고, 저를 받아 주는 학교를 찾다가 하늘꿈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꿈학교에서 공부했던 시기는 참 행복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마음껏 꿈을 꾸어보는 시절이었습니다. 하늘꿈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하면서 저는 다시 방황의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 방향이려면 진로에 관한 것인가요?

네. 전공을 살려 취업을 했다가 적성이 아닌 것 같아 여러 번 직업을 바꾸면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따뜻한 된장국이 참 그리웠습니다. 저는 꿈이 무엇이 되는 것,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따스함이 스며있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 지금은 마스크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취업했습니다. 그전에는 요리사도 했었고, 건축현장에서 일하기도 했었고 이런저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 때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많은 경험을 해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혼나면서도 배우고, 스스로 남들 모르게 노력해서 배우기도 하고. 최근 마스크 공장에 공장장으로 취업했는데 마스크를 보니 학교 선생님과 후배들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하늘꿈학교를 생각하면 마음의 빛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갇아 야지~’ 늘 생각했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2500장을 들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매일 한 장씩 필요한 마스크가 형편이 어려울 땐 얼마나 부담이 겠습니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잘 알지요.

### 마음의 빛이 좀 가뻔워졌나요?

글쎄요. 갇아도 갇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 때 바라는 것 없이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준 선생님들과 외로울 때 가족이 되어준 함께 학교를 다녔던 선배들, 그리고 집 같은 하늘꿈학교인데 아무리 갇아도 마음의 빛은 늘 한 아름답습니다.



가족사진

### 앞으로의 삶은

#### 이제는 아내와 아들이 있으니 외롭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제게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였고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행복”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 주고 싶어서 교장선생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 이름이 유시온이 되었습니다. ‘시온아~’라고 부르면 가끔 북한에서 살 때가 불현듯 생각납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거리를 떠돌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행복하지만 고향 땅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루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꿈을 꾸어봅니다. 좋은 아빠가 되는 것. 좋은 남편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유를 찾고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해 가는 것. 한국은 꿈을 꿀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이고 저는 그 자유가 있는 곳에 살고 있으니 참 행복합니다.

종종 학교에 찾아오는 유성혁 졸업생은 늘 양손 가득 무겁게 찾아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두 손에 한가득 들려있고, 겨울에는 제철 간식거리가 들려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쉬었다 하세요 선생님.’이라고 말하며 정신없이 타이핑하며 키보드에서 떠날 줄 모르던 선생님 손에 아이스크림이나 봉어빵을 쥐여줍니다. 덕분에 선생님들은 그간 안부도 묻고 잠시 쉼을 갖습니다. 성혁 졸업생의 또 다른 꿈을 위해 선생님들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성혁 졸업생이 사명 능히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소서.’ 🇰🇷

## 감사 편지로 전하는 하늘꿈의 마음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은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낯선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놓았고 지금까지도 서로의 얼굴을 가린 채 불편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어려운 이 시기에 하늘꿈 학생들을 사랑으로 품은 여러 모양의 돕는 손길들이 이어졌습니다. 재정 후원과 함께 각종 물품, 지식 나눔, 의료 지원 등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심이 느껴졌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기관)들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하며 주신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긴 학생들의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 영원무역 의류 후원

안녕하세요.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희들에게 옷을 후원해 주신 영원무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패딩이랑 바지, 신발, 저희 모두 잘 입고 있습니다. 마침 운동화가 없어 고민이었는데 보내주신 초록색 운동화 지금 잘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추워져서 겨울옷이 필요했는데 옷을 보내주셔서 너무 기뻐합니다. 벌써 추위가 왔는데 저는 옷을 사지 않고 보내주신 옷을 입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도 제가 고른 겨울 바지 하나랑 운동화를 드렸더니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덕분에 칭찬도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입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1, 김O룡)



### 법무법인 '광장' 법률 교육 후원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님이 오셔서 강의해 주실 때 관심을 갖고 듣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종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 저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때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인권에 대해 들었을 때 가장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인간의 인권을 보장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법률의 기초는 인권을 존중하며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그 바탕이 되는 지식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변호사님이 학교에 오셔서 유익한 강의를 해주셔서 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이 제 꿈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꿈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또 와 주셔서 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2, 김O정)



## 한화파워시스템

### 방역물품 및 공기청정기 후원

안녕하세요. 제가 펜을 들게 된 이유는 한화파워시스템에서 우리 학교에 후원해 주신 물품들을 너무 잘 쓰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2학기 개학하고 첫날부터 예쁜 학용품과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귀여운 마스크, 또 센스 넘치는 손 세정제까지 받고 저희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개학 첫날부터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 학교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내주신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반 한 학생은 더위를 많이 타 공기청정기를 시원한 선풍기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화파워시스템에서 주신 모든 물품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많은 물품들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2, 이O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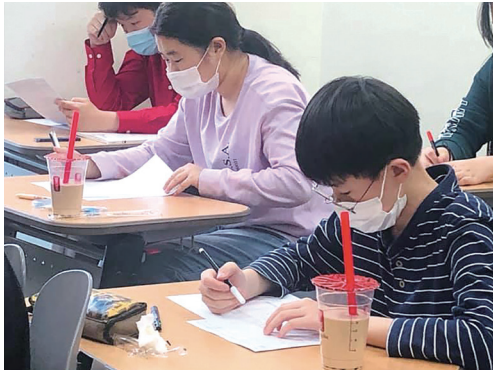
### 서울 렉스치과 진료 후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렉스치과에서 충치치료를 받은 학생입니다. 요즘은 날씨도 쌀쌀하고 일교차도 심해서 특별히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후원자님도 옷 든든하게 입고 다니시죠? 저는 치료받기 전에는 음식도 가려 먹어야 했고 이가 시려 찬물도 잘 마시지 못했는데 치료 덕분에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충치 걱정을 안 하니 일상이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때 치료도 받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치료받을 때 의사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잘 해주셔서 치과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토스트도 너무 맛있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학교에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치료받은 학생들 모두가 감사해하고 있어요. 저희를 위해 주말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3, 이O성)



## 카페 ‘공차’ 죽전점 음료 후원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음료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밀크티를 마시고 기뻐하며 웃었던 얼굴을 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주로 혼자서 생활하고 놀 때도 책 읽을 때도 밥 먹을 때도 공부하느라 사람들과 관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공차에서 밀크티를 후원해 주신 날엔 좀 달랐습니다. 시험도 끝나고 모두가 함께 즐겁게 대화하고 놀고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런 모습은 둘도 없는 추억이라 기념하고 싶습니다. 비록 어떤 분들인지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저희를 위해 이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중2, 김O청)



## 박경희 작가님 점심 식사 후원

안녕하세요 박경희 작가님!

저번에 저희에게 후원해 주신 등갈비를 친구들과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남아 꼭 감사의 편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등갈비 먹으면서 작가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사랑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가님과는 학교에서 뵈면 인사드린 것밖에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비록 학교에서 작가님 수업을 들진 못했지만 작가님께서 저희를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잘 못 봐서 정말 그립습니다. 다음에 뵈면 제가 감사의 의미로 뽀뽀를 한 판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거절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작가님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작가님! (고1, 손O하)



## I. 신앙 PART

### 하늘꿈학교 교육의 기초

#### 1:1 기도 결연

하늘꿈학교는 지난 8월부터 전교생에게 1:1 기도 후원자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매일 부모님의 기도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매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달 한번 기도 편지를 써야 하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 이 일에 여러 교회 성도님들께서 흔쾌히 나서 주셨습니다. 기도 편지를 받는 날은 아이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한 톤 정도 더 밝아 보입니다. 기도 후원을 통해 하늘꿈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귀한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 II. 지성 PART

### 통일시대에 각 분야의 리더십이 되기 위한 노력

#### 기독교 세계관 수업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 수업이 2학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윤리를 시작으로 이성 교제와 가정 및 성에 대한 주제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10월은 특히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대한민국 건국, 정치, 북한 인권',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와 선교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으로 이끌어가심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III. 인성 및 건강 PART

###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 독감예방접종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이라는 트윈데믹 우려 속에서 선한목자교회는 작년에 이어 하늘꿈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독감 예방주사 접종 비용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하늘꿈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선한목자교회, 그리고 성도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 IV. 남북통합 PART

### 사람의 통일이 이미 이루어진 현장



#### 생수의 강 기독교학교 교류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담임목사가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생수의 강 기독교학교'는 생명의 통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학교로 통일을 이끌 다음 세대를 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꿈 11회 졸업생 한옥진 학생이 수학 교사로 재직 중인데요, 하늘꿈과 생수의 강 기독교학교는 올해 여름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2주에 1번 진행되는 북한 회복을 위한 기도 모임을 통해 신앙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모일 모든 만남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 밀알두레학교 방문

기독교 대안학교인 밀알두레학교 학생들이 통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늘꿈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북한 사회의 실상을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남한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밀알두레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으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남북한의 격차를 실감하기도 했지만 통일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주역임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IV. 진학, 취업 PART

### 내게 맞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고 준비하며

#### 고3 대입 현황

하늘꿈 고3 학생들의 대학 입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3 18명의 학생 중 10명이 서강대, 한동대 등 여러 대학에 합격하였고 남은 학생들도 전형 중에 있습니다. 대학 입학이 확정된 학생들은 태도가 흐트러질 법도 한데 충실히 학교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공지사항

2021학년도 하늘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14세에서 25세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북한이탈청소년)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사진(3\*4 반명함판) 2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증명자료(검정고시합격증, 학력확인서, 학력인정증명서, 졸업증명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하늘꿈중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학력인가 학교입니다.

교육청 학력인가 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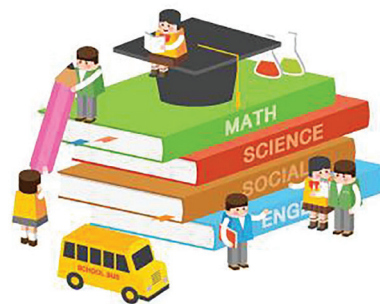
14~25세의 북한이탈청소년 및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수시로 모집합니다.

하늘꿈중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과교육 및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므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만 입학 가능합니다.



### 입학절차



### ▶ 기도해주세요

1. 하늘꿈학교가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 북한에 복음의 길을 놓을 자(졸업생, 남한 청년, 성도)를 예비하는 센터가 되도록 영적, 재정 상황 지킴

2.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의 대학과 진로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소서

# 후원자명단

<8월, 9월, 10월 후원자 명단>

## <개인후원>

강보경 강선영 강선희 강성환 박관수 강수진 강승현 강영옥 강윤모 강은산 강은주 강지원 강진홍 강진희 강홍재 경순미 고남숙 고문주 고순애 고애순 고영진 고원복 고준호 고차원 고한승 고현희 광원섭 광효진 광희령 구경희 구병삼 구효민 권대영 권상영 권세영 권영미 권윤옥 권은숙 권익환 권진희 길종두 김강석 김건철 김경곤 김경옥 김경의 김경이 김경중 김경중 김경하 김경현 김경희 김계자 김고은 김공순 김교식 김규미 김근희 김금송 김기태 김누리 김다인 김대열 김덕수 김동현 김만희 김목화 김묘선 김무수 김미경 김미나 김미라 김미선 김미자 김민규 김민정 김민지 김별 김보경 김보연 김상할 김서연 김선중 김선희 김성균 김성미 김성식 김성영 김성은 김성현 김세정 김수민 김수정 김순복 김순애 김순정 김승범 김신애 김아영 김여환 김연중 김영자 김영준 김영지 김영지 김영채 김영환 김영희 김예은 김옥자 김용미 김용미 김원아 김유라 김유리 김은경 김은덕 김은란 김은희 김인숙 김인애 김일권 김일희 김재현 김정미 김정태 김정환 김정호 김정희 김중익 김중훈 김주민 김주연 김주희 김준호 김준희 김지근 김지수 김진숙 김창석 김창숙 김창진 김창현 김춘미 김충태 김태연 김필수 김필준 김현경 김현정 김현주 김형애 김형준 김혜경 김혜인 김화영 김훈성 김홍순 김희연 김희정 나옥 나현정 남광우 남금혜 노금자 노상근 노재열 도태우 라승남 라주영 류극희 명지옥 문수정 문윤태 문채은 문형석 박경수 박경희 박근양 박기완 박나래 박난희 박동소 박동찬 박라영 박미숙 박미영 박민호 박범도 박선여 박선영 박성숙 박성은 박성희 박성희 정일환 정주영 박세정 박세중 박세호 박수경 박수영 박신영 박신영 박신영 박예지 박옥순 박은숙 박은영 박재원 박정자 박정희 박종영 박주향 박지영 박찬수 박창수 박천희 박현선 박혜경 박혜영 박호준 박호준 방효은 배경자 배민철 배선애 배연옥 배유미 배재범 배정인 백기범 변창수 서동민 서신덕 서영옥 서원희 서은광 서정숙 서창호 생재우 소정섭 손경연 손민영 손영환 손주호 손혜경 송미화 송영훈 송연진 송은주 송재원 송준옥 송현석 송현애 유성혁 신기루 신미령 신민우 신석봉 신선원 신성순 신수지 신승일 신윤미 신재경 신현주 신현호 심경희 심보라 심혁민 안상미 안성숙 안연희 안영민 안종성 안지영 안진규 안진화 양승달 양영준 양유성 양윤석 여인목 염선아 오미성 오민아 오민택 오용택 오유경 오은수 오찬석 오화봉 옥승란 우선숙 우종철 우현정 원두연 원용선 원희석 위영태 위정현 유명준 유성은 유용만 유은희 유의동 유지영 유지혜 유지희 유현숙 윤동일 윤미선 윤미희 윤상희 윤여경 윤용한 윤주환 윤지강 이건용 이경렬 이경옥 이경임 이경화 이경희 이규정 이기승 이낙영 이능경 이두란, 박미란 이명현 이문기 이문종 이미지 이민근 이민목 이병일 이병희 이부길 이상미 이상아 이상자 이선희 이성국 이성옥 이성우 이성후 이성희 이수화 이숙향 이수구 이슬기 이슬구 이영훈 이예은 이예진 이원준 이원하 이원순 이우정 이윤정 이윤주 이은선 이은정 이은주 이인화 이재경 이재동 이재영 이재준 이재훈 이정수 이정숙 이정원 이정은 이정현 이정희 이준필 이종경 이종원 이종호 이주연 이지에 이지는 이진규 이진숙 이철용 이철웅 이태만 이학승 양영옥 이한나 이현숙 이현숙 이현아 이혜숙 이호순 이후남 이훈희 이희라 이희린 이희순 이희영 이희천 임경아 임다솔 임석원 임여진 임영숙 임유라 임유아 임은 임은주 임재경 임향자 임현주 임형목 임혜정 임희숙 장경란 장귀옥 장동현 장성옥 김춘희 장세환 장순덕 장연지 장익진 장진실 장한나 전계화 전통기 전수정 전유화 정경란 정길아 정동현 정미선 정미순 정미희 정민호 정병봉 정성운 정소정 정시영 정연양 정요한 정웅섭 정유진 정윤경 정은희 정재우 정재환 정재훈 정지영 정지희 정진곤 정진수 정창우 정형자 정혁준 정희경 정희경 제갈민정 조명희 조상준 조성라 부성범 조성민 조성백 조연행 조영광 조영란 조오재 조윤경 조재숙 조정희 조진희 조찬영 조한 조혁 조현옥 조현정 조혜련 조혜숙 조혜원 조희준 주민선 주우진 주의숙 지인애 진미현 진희주 차은경 차홍선 채경령 천윤정 최대환 최란규 최민수 최선미 최성엽 최성이 최성일 최수는 최숙희 최안나 최영순 최영자 최영향 최옥수 최윤정 최은실 최은주 최인섭 최철호 최형숙 최홍준 탁지혜 태원우 편석범 하세호 하유진 하은희 하창직 하한 서승희 하혜숙 한규하 한상열 한인란 한재희 한정희 한진용 한춘자 한현진 한혜미 함채연 함혜주 허숙자 허순영 허영미 홍가는 홍기옥 홍요섭 홍원표 홍은주 홍혜진 황광옥 황민선 황인자 황정은 황정희

## <단체후원>

(주) 제이앤비컨설팅 (주)경도기술 (주)니코글로벌 (주)인터케어 가락동부교회 강서침례교회 공차 용인죽전전 광성교회청나비선교회 권선제 일교회 글로벌엘림미션 기독교대한감리회신촌교회 기쁜교회 남산감리교회 내동교회 내수동교회 능곡제일교회 대원감리교회 더프레임종합건 설 돈암교회 동송교회 드림교회 미아중앙교회 반석교회 북아현성결교회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 사랑하는교회 산성교회 상계광림교회 상계광 립교회 상계광림교회 새빛전원교회 서문교회 선단화목교회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 성남제일교회 성지내과이비인후과 세신 교회 시흥하늘꿈교회 신촌장로교회 아들람 선교회 여주중앙감리교회 20지회 장경숙 예수님의사람들교회 우리들교회 우림빌딩 월드휴먼브리 지 일산광림교회 정동제일교회 제자들교회 주님사랑교회 중곡교회 지구촌교회 목장 지구촌교회 통일선교팀 참빛교회 창일 루터교회 창일교회 최기은&안미라굿댄스 하늘가족교회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교회 한나회 한빛교회 한화파워시스템 주식회사 할렐루야교회 통일선교 할깨지 어가는교회 행복나무교회 혜성교회 아산병원진단검사의학과 풀무원드림상사

## <물품후원>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국 한빛교회 송수련 선한목자교회 선교위원회 한화파워시스템 남옥자 정동제일교회 김영래 김지연 법사랑 성남지부 이정래 송진순 최정옥(공차) 반은혜(공차) 부광교회 유성혁 월드휴먼브리지 유승희 영원무역 성남경찰서 보안계 조오재 일산산성교회

하늘꿈중고등학교에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름은 실지 못했지만, 학습 봉사, 주방 봉사 등으로 섬겨주시는 손길에도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 위 후원자 명단은 후원금 계좌에 입력된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후원자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후원 관련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교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하늘꿈학교로 연락 주시면 우편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 (사)좋은씨앗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 기부금 대상 단체입니다.

후원을 해주신 개인 및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하늘꿈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방법>

### 1. 하늘꿈 프렌즈(자원봉사자)

주방 봉사, 1:1 과외 지도, 행정 봉사 등

(하늘꿈중고등학교 홈페이지 [www.hdschool.org](http://www.hdschool.org) 에서 신청. 요청 시 봉사확인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2. 후원

정기 후원(교육비, 급식비, 장학금), 물품 후원(식품, 의류, 도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기념일 후원 등  
후원계좌\_국민은행 331301-04-096542 사단법인 좋은씨앗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 11

연락처 | 031)758-2071 | [www.hdschool.org](http://www.hdschool.org)

\* TOV PROJECT

하늘꿈학교 소식지는 종이와 숲을 살리는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